



左-루니, 右-철우 '현대 파워'

LIG 꺾고 팀간 전적 15연승
여자부 흥국생명 7연승 질주

프로배구 현대캐피탈 스카이라이프가 LIG를 완파해 전적 관계는 깨지지 않았고 흥국생명은 한국도로공사를 꺾어 여자부에서 파죽의 7연승을 달렸다.

현대캐피탈은 7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 4라운드 LIG와 경기에서 래프트 손루니(20득점)와 송인석(14득점), 라이트 박철우(12득점), 센터 이선규(8득점)의 고른 활약으로 3-0(27-25 25-22 25-16)으로 완승했다.

지난 4일 대한항공에 완패한 충격을 달린 현대캐피탈은 13승5패로 대한항공(11승6패)과 승점차를 2점으로 벌리며 2위를 지켰으나, LIG는 정규리그에서만 현대캐피탈에 15연패를 당했다.

1세트에 듀스 점전 끝에 기선을 잡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현대캐피탈은 1세트 22-24에서 송인석의 스파이크와 상대 윈터스의 터치넷 범실을 엮어 힘겹게 듀스를 만들었으나 세트 권역민의 서브범실로 한 점을 내준 뒤 박철우의 스파이크와 이선규의 가로막기, 송인석의 서브특점으로 연속 3점을 뽑아 기선을 잡았다.

2세트에는 거미손 센터 이선규의 속공과 블로킹이 빛났다.

현대캐피탈은 윈터스의 공격을 막지 못해 접전을 펼치던 14-15에서 송인석의 스파이크와 이선규의 잇단 블로킹으로 4점을 뽑아 18-15로 역전했고 윈터스의 후회공격과 서브특점에 23-22까지 쫓겼지만 송인석의 시간차공격과 상대범실에 관승해 주격을 뿌리쳤다.

기세가 오른 현대캐피탈은 3세트 12-11에서 하경민의 속공을 시작으로 연속 5득점해 17-11까지 달아났고 박철우와 송인석이 주격의지를 상실한 LIG 코트를 맹폭한 뒤 24-



7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 현대캐피탈-LIG 구미경기에서 현대캐피탈 손루니의 공격을 LIG 윈터스와 방실피가 블로킹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에서 박철우가 스파이크를 성공해 승리를 마무리했다. 여자부에서는 선두 흥국생명이 케이티윌킨스(24득점)와 김연경(21득점), 황연주(20

득점)의 막강 화력으로 레이첼 밴 미터(27득점)이 분전한 도로공사를 3-1(25-19 14-25 25-15 25-21)로 꺾고 12승 2패를 기록했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D-21

“우리도 편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오행원 사장과 31명의 마라톤러들이 훈련에 앞서 공사 구호인 '광주사랑, 지하철 사랑'을 외치며 화이팅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고객만족 으뜸 지하철’ 사기 충전

■ 광주도시철도공사

“고객만족 1등의 광주 지하철 명예를 걸고 혼신을 다해 달려겠습니다.”

광주 지하철이 마라톤 열풍에 힘써왔다.

5년째 3·1절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는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지만 올해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31명이 참가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 대부분이 4~5년간의 참가 경력을 바탕으로 체력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측은 대거 상위 입상을 기대하고 있다.

1호선 2구간·2호선 홍보 계획도

특히 직원들의 건강이 지하철 안전 운행의 필수조건이라며 오행원 사장과 임원들이 이번 대회를 몸실험양으로 지원하고 있어 참가자들의 사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

광주 지하철은 지난 2004년 4월, 역사적인 1호선 개통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장비와 시설, 혁신적인 경영전략, 그리고 문화지하철이라는 획기적인 문화공익사업으로 주위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지난 해에는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지하철 부문 전국 1위라는 평가를 받아 서비스 측면에서도 으뜸 지하철로 인정받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번 대회를 지하철 시민서포터즈 ‘메트로엔젤’과 ‘메트로 문화센터’ 등 공사의 대표적 문화사업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고 홍보에도 총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봄 개통할 1호선 2구간과 건설 준비 중인 2호선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5년동안 꾸준히 참가...상위입상 기대

특히 광주 지하철을 대표하는 선수단의 사기 충전을 위해 직원 가족 등 200여명이 조직적으로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어서 이번 대회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31명은 저마다 출전에 앞서 당찬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마라톤러의 대표인 나석주 전략기획실장은 매일 아침저녁 걷기·달리기로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하프코스 상위권 입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나실장은 “대회 당일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문화·안전지하철 등을 널리 홍보하겠다”며 “단순히 마라톤대회에 참가한다는 것 보다는 3·1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결혼해 한창 신혼의 단풍에 젖어있는 서경환(흥보교육팀)씨는 득직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사랑하는 아내에게 입상 메달을 선물하겠다는 각오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한국 상공랭킹 1~3위에 US 여자오픈 출전권”

미국골프협회 “올해부터”

미국골프협회(USGA)는 올해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상공랭킹 1~3위 선수에게 US여자오픈 본선 출전권을 주기로 했다.

7일 골프 매니지먼트회사 HSMG(대표 장종환)에 따르면 USGA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US여자오픈 예선 선수에 전년도 KLPGA 상공랭킹 1~3위 선수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6월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

니들스에서 열린 2007년 US여자오픈에는 신지애(19·하이마트), 박희영(20·이수건설), 최나연(20·SK텔레콤) 등 2006년 KLPGA 상공랭킹 1~3위 선수들이 예선없이 출전하게 됐다.

USGA는 지금까지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상공랭킹 1~3위와 일본여자프로골프 상공랭킹 1, 2위 선수에게는 예선없이 본선에 출전하도록 해왔지만 한국 선수에 이런 특례를 주지 않았다.

미국 스포츠 재벌 컨소시엄

잉글랜드 축구팀 ‘리버풀’ 인수

미국 스포츠재벌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18회 우승의 전통을 자랑하는 리버풀을 전격 인수했다.

로이터와 AP통신은 7일 프로야구(MLB)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주 톰 힉스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몬트리올 캐나디언스

구단주 조지 질레트가 1억7천400만 파운드(3천180억원)에 리버풀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폼 풋볼 바이클’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들은 리버풀의 부채까지 떠안기로 해 인수대금 총액은 2억1천900만 파운드(4천3억)에 달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팀이 미국 재벌에 인수된 것은 말콤 글래더저 가문이 사들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국프로풋볼(NFL) 구단주 랜디 러너가 인수한 애스턴 빌라에 이어 세 번째다.



8일(목)

▲V-리그(한국전력-상무)(18 : 30·KB-SN Sports)

▲프로농구(구보스-KTF)(18 : 50·SBS 스포츠, Xports)

9일(금)

▲PGA투어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1R(05 : 00·SBS스포츠)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06타경 20915	1	광산구 일곡동 299-657㎡	대	118,694,18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2006타경 22388	1	북구 오지동 987-31 119.2㎡	대	116,145,350	일괄매각.
2006타경 19496	1	광산구 용동동 194-6 1330㎡ 지상에 분묘 있음[분묘지권 성립 여지 있음]	임야	19,950,000	
2006타경 20373	1	회산동 출양면 가동리 1016-3 3753.6㎡ 특	답	37,53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06타경 20472	1	영광군 흥농동 전리리 183 1030㎡ 제외의 주택 등 151.8㎡ 위 지상에 매각의 제외의 건물은인해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대	33,982,000	비닐하우스 1동소 12,360,000지.
2006타경 20585	1	서구 화정동 319-43 69㎡ [공유지 최후속	전	1,128,600	실제로도로사유[지분분할]
2006타경 21024	1	나주시 불향면 유곡리 560-1B 117㎡	전	4,380,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06타경 21512	1	나주시 불향면 유곡리 560-1B 117㎡	전	4,380,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06타경 22089	1	회산동 출양면 대신리 산129 30347㎡	임야	81,936,900	지상에 분묘있음.
2006타경 18523	1	서구 능성동 621-9 126㎡	대	102,023,70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2006타경 19397	1	남구 칠산동 923-12 188.4㎡	대	250,454,99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2006타경 20199	2	영광군 영광동 남천리 304-3 53㎡	전	21,285,26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본건지주의 일부가 타인 토지소속사.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06타경 19671	1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808 3474.4㎡ 제외의 옥외장 48.8㎡, 기계기구 채설기 1	공공장지	272,069,84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및기계기구부속포함.
2006타경 20199	1	영광군 군서면 부라리 산23-1 198㎡	임야	27,658,000	일괄매각.
2006타경 7530	1	남구 산수동 550-53 294.3㎡ 제외의 주택	대	319,037,710	일괄매각(제외의 건물포함).
2006타경 18815	1	동구 개천동 100-11 금호계림주상복합 상가	상가	57,000,000	
2006타경 22744	1	광산구 운남동 456-9 250㎡	전	294,735,340	일괄매각.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06타경 20199	1	영광군 군서면 부라리 산23-1 198㎡	임야	27,658,000	일괄매각.
2006타경 22089	1	회산동 출양면 대신리 산129 30347㎡	임야	81,936,900	지상에 분묘있음.
2006타경 21512	1	나주시 불향면 유곡리 560-1B 117㎡	전	4,380,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06타경 22744	1	광산구 운남동 456-9 250㎡	전	294,735,340	일괄매각.